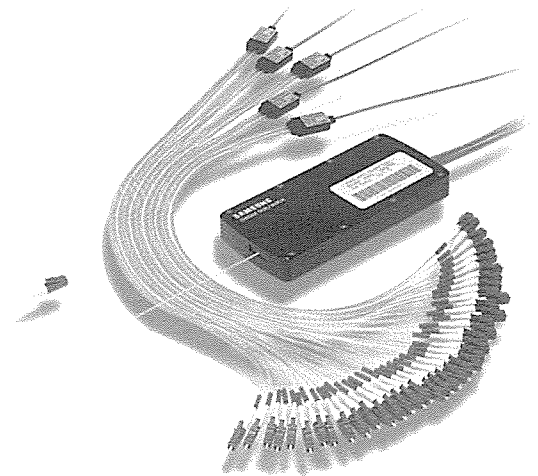


2005년도 光산업 경기 전망



광산업 수급 동향 및 전망

광산업 수급 동향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	2004년(추정)	%	2005년(전망)	%
생산	181,500	19	201,200	11	231,400	15
내수	110,400	24	124,800	13	148,000	19
수출	94,580 (48,130)	6.0	101,530 (68,560)	7.9	110,240 (74,760)	8.5
수입	62,770 (20,280)	15.6	68,290 (18,910)	8.7	75,040 (19,720)	9.8

※ 대상 : 광통신, 광원및광전소자, 광정밀기기, 광소재, 광정보기기, 광학기기 (6개 분야)

※ 적용환율 : 1,250원/USD

※ 2005년 전망은 2003년과 2004년 평균 증가율 적용

※ ()내는 광정보기기 분야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LCD, PDP, OLED) 및 광학기기 분야에서 관측용 기기(쌍안경, 망원경, 천체관측용 기기)와 광학현미경 등 광산업육성계획과 직접 연관성이 덜하거나 타산업 분야와 중첩성이 있는 분야를 표시함.

■ 2004년도 실적

- 전 세계적인 광CABLE, 광부품, 시스템 등 공급 과잉 상태에 기인하여, 2004년까지 신규 수요 둔화 지속 영향을 받은 국내 광통신 관련 업체들의 생산 및 수출 둔화
- 특히, 메이저급 대기업 경우 미 달러화 약세 급락에 따른 수출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됨.

■ 2005년도 전망

- 2000년부터 시작된 광산업의 침체 요인들이 점차 해소되면서 2004년을 기점으로 매출 및 수출 실적이 호전 되고 있으며, 2005년도 생산액이 23조 1,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 2005년중 세계 IT경기가 반도체에 대한 견실한 증가에 따라 신장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이 많은 광산업 전반에 신장세 예상 됨.
- 광통신 분야 경우 2004년말 기점 전 세계적으로 과잉 공급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수요발생에 따른 생산 및 수출 증가 예상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과 미국의 광가입자망 (FTTH)사업 본격/확대 실시에 따른 광통신 부품 분야의 수출 증가 예상
- ※ 주요국 FTTH 시장 규모 확대 계획
- 일본 : 2005년 300만 가구 확대적용 계획 (최종 목표 : 2010년 3,000만 가구)

광산업 수출 실적 및 전망 (2001 ~ 2005)

(단위 : 십억원, %)

연도 분야	2003		2004		2005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광통신	345	7.0%	334	-3.0%	332	-1%
광원 및 광전소자	352	6.6%	380	8.0%	415	9.4%
광정밀기기	238	25.6%	304	28.0%	386	27%
광소재	338	4.5%	346	2.6%	359	4%
광정보기기	6,610 (4,735)	6.5%	7,138 (6,776)	8%	7,787 (7,392)	9.1%
광학기기	1,574 (78)	1.5%	1,651 (80)	4.9%	1,745 (84)	5.7%
계	9,458 (4,813)	6.0%	10,153 (6,856)	7.9%	11,024 (7,476)	8.5%

광산업 수입 실적 및 전망 (2003 ~ 2005)

연도 분야	2003		2004		2005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광통신	630	3.7%	642	1.9%	657	2.3%
광원 및 광전소자	905	27.6%	1,008	11.4%	1,135	12.6%
광정밀기기	1,473	35.8%	1,756	19.2%	2,101	19.7%
광소재	487	10.6%	508	4.3%	533	5.0%
광정보기기	1,9061 (1,751)	-2.1%	1,955 (1,591)	2.6%	2,015 (1,640)	3.1%
광학기기	876 (277)	36.3%	960 (300)	9.6%	1,063 (332)	10.7%
계	6,277 (2,028)	15.6%	6,829 (1,891)	8.7%	7,504 (1,972)	9.8%

- 미국 : 2005년도 하반기 부터 본격 실시 계획
- 한국 : 광주광역시 광가입자망 FTTH 서비스 시범 사업 확정 (2005년 4천 가입자/가구 적용 실시 계획 확정, 최종목표 : 2005~2008 까지 2만 가입자/가구)
- 특히, 분야별 규모면에서는 “광정보기기” 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증가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은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됨.



- ※ 2004. 1 ~ 10 실적은 관세청 HSK 수출입 현황과 KISTI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광산업 제품 특성 (타산업과 중복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 조정된 결과이며,
- ※ 2004. 11~12 실적은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추정치임.
- ※ 2005년 수출입액은 예상치
- ※ 적용환율 : 1,250원/USD
- ※ ()내는 광정보기기 분야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LCD, PDP, OLED) 및 광학기기 분야에서 관측용기기(쌍안경, 망원경, 천체관측용 기기) 광학현미경 등 광산업육성계획과 직접 연관성이 덜하거나 타산업 분야와 중첩성이 있는 분야를 표시함.

(30%)

- 광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광기술과 전자부품기술의 접목을 통한 광전자산업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 계획임.
- LED 및 광통신 분야로 특화하여 산업 활성화 도모
- 1단계 기 구축 인프라 적극 활용한 상업화 촉진
- 상업화 중심 신제품개발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형 기업 집적화
-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혁신 지원 및 창업 보육 지원 사업
- 광산업의 생산, 연구, 교육 집적화로 국내핵심 생산기지화 목적

2005년 광산업 투자 계획

- 2005년 분야별 투자 계획
- 정부의 4개 지역산업진흥 2단계 사업 추진 계획 중, 광주 광산업육성 2단계 1차년도(2005년) 사업 계획에 의거
- 총 사업비 : 498억원(국비 352억(70%), 지방비 146억

광산업 집적화 지역(광주) 수출입 실적 및 전망

2000년부터 하강하기 시작한 광산업 경기가 2003년도 바닥 횡보를 지나 2004년을 기점으로 매출 및 수출 실적

2005년 분야별 투자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생산설비	R&D	정보화	기타 (해외마케팅, 기술지원 등)	합 계
광산업	176	229	-	93	498

주요 기업별 중점사업 및 투자계획

(단위: 억원, 명)

기업명	주요 생산품목	매출전망	투자전망	종업원수	역점사업
KT	유·무선통신	126,429	26,550	37,652	광통신네트워크, 초고속인터넷통신
빛과전자	광통신 부품/소자	576	25	93	광통신
삼성전기	광 pick-up	30,955	4,952	8,188	광모듈, 광반도체, 광 device
LG이노텍	LED	9,650	1,061	1,289	LED chip, LED 응용제품

이 상승세로 진입했다는 판단이며(* L자형 → U자형의 모습이 예상 됨) 2005년 말 거의 대부분 업체가 BEP(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통신 분야 전국 수출 실적은 2004년, 2005년 감소하는 데에 비해, 동 기간 광산업 집적화 지역 광주 소재 주요 광통신 업체 수출 실적은 신장 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전망 또한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지역 광산업체들이 시장회복에 힘입어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광주광산업대표자협의회(회장 김진봉 피피아이 사장)가 고려오트론, 신한포토닉스, 옵테론, 우리로광통신, 피피아이 등 주요 광통신부품 업체 10개사의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373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2003년 223억2000만원보다 149억8000만원(67%) 증가했다. 특히 상당수의 업체들이 올해 말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해 안정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 10개 업체의 총 종업원 수도 지난해 213명에서 올해 308명으로 95명 늘었다.

이와 함께 제품 주요 판매 지역은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으로 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총 187억1700만원의 수출액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년간 시장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온 광주 광산업체들이 이처럼 성장세를 회복한 것은 을 들어 미국·일본·유럽에서의 맥내광가입자망(FTTH)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협의회는 2005년에는 조사대상업체 10개사의 총 매출액이 645억원으로 늘어나고 인력도 41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로광통신(대표 김국웅 <http://www.wooriro.com>)은 올해 수출을 지난해 16억원 대비 230% 늘어난 50억원으로 설정하고 일본,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서두르

고 있다. 이 회사는 해외에서 호평받고 있는 초소형 광분배기 제품의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맥내광가입자망(FTTH) 물량 수주에 대비한 생산설비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피피아이(대표 김진봉 <http://www.ppitek.com>)는 지난해 말 일본 N사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올해의 수출주문 물량까지 이미 확보, 올해 흑자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옵테론(대표 신권식 <http://www.opteron.com>)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5억원의 수출을 목표로 연초부터 스플리터 양산, 설비 증설과 함께 미국·일본 등 해외 고정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신한포토닉스(대표 주민 <http://www.shinhannet.com>)는 내년 매출을 올해 135억원보다 41% 증가한 180억원으로 잡고 올해 15억원을 투입, 패들과 패치코드 등의 생산라인을 증설한 데 이어 내년 초에 추가 20억원을 투입해 설비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이 회사는 최근 에릭슨과 470만유로 규모의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와 원활한 물량 공급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광송수신 모듈 전문 생산업체 오이솔루션(공동대표 추안구, 박용관 <http://www.oesolution.com>)도 기가바이트 이더넷(GE)-PON용 광송수신 모듈을 일본과 미국, 유럽 등지에 수출하기 위해 생산라인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최순조 정보지원팀장은 “지난말을 기점으로 전세계적으로 기존 통신 인프라 물량이 소진돼 올해에는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시장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국내 광통신부품 업체들이 본격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